

이모가 네살배기 조카 살해... 학대 흔적

나주서 사위중 말 안듣는다며 목 졸라...명자국 다수 발견

한부모 가정으로 이모가 돌봐...경찰, 긴급체포 경위 조사

나주에서 이모와 함께 살던 네살배기 어린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아이를 돌보던 친이모로부터 “사위 도중 말을 안 들길래 순간적으로 화가나 목 졸랐다”는 진술을 확보,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숨진 어린이의 머리와 배를 비롯한 몸 곳곳에서 학대 흔적으로 보이는 멍 자국을 다수 발견하고 학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나주경찰은 아파트에서 사위를 시키다 친 조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여·25)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나주시 이창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조카인 B(4군)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이날 오후 4시50분께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나주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이모인 A씨는 119

에 전화를 걸어 “조카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B군은 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병원으로 옮겨졌을 당시 B군의 이마에서는 다수의 멍 자국이, 머리 뒷 부분에서는 혹이 발견됐다. 배에도 멍 자국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몸 곳곳에서 멍 자국 등 학대 의심 흔적을 발견한 병원 측은 범죄 연관성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모 A씨는 이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집에서 조카를 사위시키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치솟아 목을 졸랐다. 그 뒤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 부모 가정 아이로 파악된 숨진 B군은 이모인 A씨와 살았고, 최근 친모는 충청 지역으로 돈을 벌기 위해 아이를 여동생에게 맡겨두고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으로 출동한 직원이 1차적으로 목을 졸랐다는 진술을 이모에게서 확보했고, 숨진 아이 몸 일부에서 학대 의심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멍 자국 등을 발견했다”면서 “범죄 장소인 아파트 현장 조사와 피의자 조사 등을 거쳐 정확한 사건 경위, 평소 학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태극기 흔드니 신나요” 10일 광주시 서구지역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불 조성 운동’ 행사가 열린 서구청 앞 바람개비 태극기 화단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즐거워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또 통학버스 사고...여수서 두살배기 숨져

어린이집 원장이 후진하다 치어 매뉴얼 안지킨 ‘人災’

여수의 한 어린이집에서 두살배기 어린이가 후진하는 통학 버스에 치어 숨졌다. 지난달 광주의 한 유치원에서 네 살배기 어린이가 폭염 속 통학 버스에 갇혀있었다 의식불명 상태에 놓인 사고에 이어 어른들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전남도청과 여수시청 측은 이번 사고를 기본적인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폐원 등 행정조치를 검토 중이다. 10일 오전 9시15분께 여수시 미평동 M

어린이집 앞에서 박모(2)군이 어린이집 원장 송모(여·56)씨가 운전하던 9인승 어린이집 차량에 치였다. 이 사고로 뒤로 넘어진 박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박군은 이날 통학차량을 타고 어린이집에 도착해 인솔교사의 도움을 받아 하차한 뒤에 차량 뒤에 서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 경찰이 제공한 영상을 보면 숨진 박군은 노란 통학버스 차량 뒤 1m 거리에 홀로 서 있었다. 박군 주변에는 당시 인솔교사 등 어린이집 관계자나 다른 어린이들의 모습

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통학 버스 차량을 돌리기 위해 후진했고, 운전자이자 원장인 송씨는 박군의 존재를 모르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운전자 송씨와 인솔교사 등을 상대로 박군을 어린이집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았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 사고에 앞서 지난달 29일 광주시 광산구에서는 네 살배기 어린이가 폭염 속 점점 통학 버스에 8시간가량 갇혀있다가 뒤늦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 불명 상태에 놓였다. 등원을 위해 통학 버스에 탄 어린이가 제대로 하차해 유치원으로 갔는지 버스 운전기사, 인솔교사, 담임

보육교사 등 누구도 파악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사고였다. 이날 여수에서 통학 버스에 치어 숨진 어린이와 폭염 속 통학 버스에 방치된 어린이 모두 어른들의 기본적인 의무만 뒤따랐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가. 보건복지부 지침을 보면 어린이집 등·퇴원 차량 운행시 운전기사 및 보육교사 등 동승자는 탑승한 어린이들을 보육교사나 보호자에게 “인도”하도록 돼 있다. 또 탑승한 어린이들이 모두 안전하게 인도됐는지 확인하게 돼 있다. 전남도청 관계자는 “현재 보고받은 대로라면 기본적인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찰 조사 결과 어린이집 측 과실이 드러나면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폐원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정희기자 chkim@

광주 전기료 누진제 소송 ‘관심’

2014년 101명이 한전 상대 부당이득 반환소

선고 계속 미뤄져...광주지법 사건 재배당기로

20일째 폭염이 지속되면서 가정마다 에어컨 가동이 급증하면서 전기요금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전기사용량이 일정량을 초과하면 누진요금이 적용돼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이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10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강은 송모씨 등 101명의 의뢰를 받아 2014년 9월5일 한전을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은 최근 이 사건을 재배당하기로 했다. 소속 법관 중 일부가 해외연수 등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재판 업무의 일부를 조정해야 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재판을 맡고 있는 법관도 이 같은 차원에서 자리를 옮기게 됐다는 것이다.

그 동안 재판부가 한 차례 변경(민사3 단독→7단독)됐으며, 결국 4명의 법관이 소장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소송을 맡은 광상연 변호사는 “사실상 선고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사건이 재배당됐다”고 말했다. 재배당으로 인해 선고는 결국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이 같은 사정은 타 지역 법원도 마찬가지라는 게 변호인의 설명이다.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 요금체제의 부당성을 주장하던 사용자 21명이 2014년 8월 한전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관련 사안은 부산과 대전·광주로 이어져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선고가 미뤄지고 있는데 대해 “법원이 사안의 성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결과에 따라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전기요금 체계에 파장을 불러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소송은 소장이 접수된 뒤 기일변경과 속행 과정을 이어가며 올해 2월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기 인사로 인한 재판부 변경으로 선고가 미뤄지고 미뤄지다 또다시 변론이 재개되는 헛바퀴를 돌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목포서 생후 5일된 아들 버린 엄마 조사


목포경찰청은 10일 생후 5일된 아들을 버린 혐의(영아 유기)로 A(여·39)씨를 불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4시30분께 목포시 원산로 한 아파트 현관 앞에 생후 5일된 아들을 놓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지난 2012년 5월에도 생후 3일된 영아를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아이를 유기했지

만 다시 양육의사를 밝히고 현재까지 키우고 있다. 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A씨는 경찰에서 “생활고로 인해 어쩔수 없이 아이를 유기했다”고 말했다. 목포경찰청은 범행동기가 생활고이고, A씨가 유기한 영아를 양육하겠다고 밝혀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사기·횡령 등 11건 지명수배 50대 4년만에 탈피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무려 11건의 지명수배를 받고 도주 중이던 50대 남성이 첩보를 입수하고 체포에 나선 경찰에 탈피. ○...10일 광주광산경찰청에 따르면 김모(56)씨는 지난 2012년 6월 지인을 협박해 사업자금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광주지방경찰청에 의해 수배조치되는 등 지난 2014년 12월까지 각종 사기, 공

갈,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질러 수심익힌을 가로챈 혐의로 도피하던 중 지난 9일 광주시 광산구의 한 성인오라실에서 경찰에 붙잡혔다는 것. ○...경찰과 맞닥뜨린 김씨는 자신과 생김새와 나이가 유사한 주민등록증을 대며 빠져나가려 했으나, 경찰이 “주민번호 뒷번호를 끝까지 똑박똑박 불러보라”고 하자 머뭇거리다 결국 신원이 탄로. /김형호기자khh@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일반 부동산 매매, 임대
경,공매 NPL 컨설팅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매 추천물건

- ★ [공정] 광주 북구 대촌동 첨단산단 삼성전자 인근 대지 3,293㎡ 건물 1,495㎡ NPL추천물건 감평가 17억5천 ▶최저가 12억2천
- ★ [상가]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10층중 10층 스카이라인지 상가 483㎡ 카페, 7080, 맥주전문점 추천 감평가 8억7천7백 ▶최저가 6억1천3백
- ★ [상가]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인근 대로변 2층상가 토지 735㎡ 건물 449㎡ 감평가 11억8천7백 ▶최저가 8억3천1백
- ★ [공장] 광주 광산구 안창동 공장 대지 5,940㎡ 건물 5,872㎡ 감평가 57억6천7백 ▶최저가 20억6천7백(36%) 기아차공장인근
- ★ [상가] 광주 동구 금남로5가 대로변 산업은행인근 3층상가 대지 566㎡ 건물 827㎡ 광고효과최상 감평가 2억3천2백 ▶최저가 14억9천2백
- ★ [원룸] 광주 북구 두암동 원룸건물 대지181㎡ 건물320㎡ 감평가 2억6천5백 ▶최저가 1억8천5백 투자추천
- ★ [상가] 영암군 시종면 만수리 3층상가 대지 691㎡ 건물 1008㎡ 감평가 8억8천3백 ▶최저가 3억9천5백 (45%) 투자추천
- ★ [공정] 곡성군 석곡면 연리리 석곡농공단지 대지 4,753㎡ 건물 2,619㎡ 감평가 7억8천3백 ▶최저가 2억8천 (36%) 투자추천

투자 추천 물건

- ★ [상가] 광주 북구 용두동 대로변 6층상가 대지 525㎡ 은행, 사우나등 고수익 유동인구많음 ▶매매 55억원
- ★ [무인텔] 광주 북구 유동 무인텔 대지 1,010㎡ 건물 1,610㎡ 객실 20개 월 5천만원수익 위치좋은 ▶매매 20억원
- ★ [상가] 광주 수완동 경찰지구대 인근 아파트상권 4층상가 준주거지역 대지 475㎡ 월8백만원 ▶매매가 17억
- ★ [상가] 광주 서구 풍암동 대형마트 대지 2,961㎡ 1층 마트, 2층 의원, 3층 학원 대형주차장 매매가 상당결정
- ★ [상가] 광주 북구 신운동 첨단2지구 신축 4층빌딩 대지 782㎡ 건물 1,829㎡ 보증금 6억 월2천3백 융18억 ▶매매 48억
- ★ [토지] 주월동 EG더원아파트 인근 대지 661㎡ 현 시대운영중 투자적합 대형 판매장 상가 건축적합 ▶매매13억원
- ★ [상가]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용 30억 보증금 2억천 월 3천 2백만원 ▶매매 50억 (요양병원허가취득)
- ★ [토지] 광주 광산구 옥동 평동역앞 대지 480㎡ 업무지원시설부지 코너위치 건폐 70% 용적 250% ▶급매가 4억4천(급매, 조정무)

수익형 추천

- ★ [모텔] 전남 영암군 월출산 조양 5층 모텔 대지 1,181㎡ 건물860㎡ 대로변 내외부개끗 ▶매매 4억(용2억7천) 투자적합 장기투수 다수 직영추천
- ★ [상가주택] 광주 첨단2지구 대지 258㎡ 건물380㎡ 코너위치 1층상가 다가구 5세대 안집 월 440만원 용 2억2천5백 ▶매매 9억3천
- ★ [펜션]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수익성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당후 결정
- ★ [토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인근 바다,하산리 조양 펜션, 빌라부지적합 4,000㎡ 주택28세대가능 수익형 28억선 교환
- ★ [오피스텔] 광주 동구 지산동 대지 298㎡ 건물 1,088㎡ 원룸18개 투룸6개 쓰리룸6개 (용4억5천포함) 대로변 버스정류장앞 ▶매매13억5천
- ★ [상가] 광주 소촌동 대형상가 대지 2,146㎡ 주차장빌딩 포함 대형마트, 사우나등 고수익상가 매매 상당결정
- ★ [상가] 목포시 연산동 롯데슈퍼 인근 대로변 버스정류장앞 대단위 아파트단지 배후 신축 3층건물 대지 1,461㎡ 광고효과 최상 ▶매매 35억
- ★ [상가주택] 광주 남구 주월동 남구청 인근 고수익 4층상가, 오피스텔 대지 366㎡ 건물947㎡ 지하1층상가 사무실, 2~4층오피스텔 ▶매매 13억5천

상가, 주택, 토지, 임야 매매하실분 전속중개 접수 환영 공인중개사 강천구 062-714-2251